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융합연구

이정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eongim Lee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융합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155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r=.27$, $p=.001$)과 정치관심도($r=.4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24$, $p=.003$)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관심도($\beta=.37$)와 정치효능감($\beta=.21$)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beta=-.27$)가 낮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5.7%였다.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맞는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를 높이고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convergence study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on political participation. Participants were 3rd and 4th grade 155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is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political efficacy($r=.27$, $p=.001$), political interest($r=.42$, $p<.001$), and attitude in global citizenship($r=-.24$, $p=.003$). The higher political interest($\beta=.37$) and political efficacy($\beta=.21$), the lower the Global citizenship_Attitude, the higher political participation. A total of 25.7%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plained. In order to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sults suggest it is necessary to political education for enhancing political interest and efficacy.

Key Words :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Global citizenship,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참여란 정부나 정책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활동으로[1], 능동적 시민이 가지는 핵심 역량이며[2]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당, 사회적 단체 혹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와 관련된 모든 개인의 참여활동이다[3].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치참여의 의미는 변화해왔고 오늘날 대학생들은 단순히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인이 되는 것 까지 정치참여로 인식하고 있다[4].

오늘날 정치참여를 가능하는 수준은 투표율로 알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투표율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6-7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2-30대의 투표율이 낮았는데[5,6], 이는 2-30대의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0대의 젊은 유권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정치참여 수준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자연과학계열의 학생보다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7], 자연계열에 속한 간호학과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보다 정치참여의 수준이 낮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치참여 수준이 5점 만점에 2.14점으로 나타났다[8].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면 간호사의 정치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간호사의 정치참여 또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배움에 과정에 있다[10]. 간호사의 정치참여는 건강정책에 개입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더 나은 건강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11]. 간호사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12]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훈련받기 때문에 간호사는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13] 간호사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보건관련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규명하여왔다[14].

Verba의 시민자발성모델[1]은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 시민자발성모델에 의하면 정치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자원, 둘째는 심리적 관심, 셋째는 모집 네트워크다. 첫째, 자원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성별, 가계의 수입, 학력, 종교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둘째 심리적 관심은 정치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를 말하는 것인데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시민의식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모집 네트워크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정치참여를 이끄는 조합이나, 동맹, 협회 조직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1].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높고,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와 같은 심리적인 관심이 높으면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하며, 협회나 단체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치참여를 한다는 것이다[1].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정치교육의 부재이다[14]. 정치교육은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데, 독일어권에서는 '정치교육'으로 사용하고 영미권과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교육'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5]. 세계화가 되어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하였고, 이 교육은 세계시민으로써 능동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15].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7차 교육과정(1997-2006)부터 세계화 시대에 인류의 번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왔다[16].

정치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8,10],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TV뉴스, SNS이용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다[17]. 정치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시민교육과 정치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18,19], 교육의 성과로 세계시민의식과 시민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20,21].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도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8,10], 세계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성과로 세계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20,21], 정치교육을 이수한 집단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결과에 따라[22]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현재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의 수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8,10], 세계시민의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연구도 일부지역에 국한된 학생이나 간호사[8,10,17]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맞춘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정치참여의 수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경북 K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건의학을 다루는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을 배운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수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산출결과 회귀분석에서 검정력(1-β)=.90,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medium .15, 예측 요인 9개로 하였을 때 최소의 표본수는 141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자 수로 선정하였다. 회수한 162부의 설문지 중 불

성실한 응답 7부를 제외한 155부를 연구에 최종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이란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23]. 즉, 개인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정부 기능 및 정부과정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며, 이런 변화에 개인의 정치행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정치효능감으로 볼 수 있다[23]. 측정은 남인용과 허일수[3]가 개발한 정치효능감 도구를 신재선[23]이 재구성한 11개의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치효능감은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반영하고,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체계의 반응성에 대한 일반 인식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도구를 이루고 있는 문항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하여 역문항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재선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은 Cronbach α .83, 외재적 효능감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정치효능감은 .81, 내재적 효능감은 .80, 외재적 효능감은 .83이었다.

2.3.2 정치관심도

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여 정치관련 기사나 뉴스, 타인의 의견과 태도,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한다[23]. 본 연구는 신동욱과 양해술[24]이 개발하고 신재선[23]이 재구성한 도구로 5점 likert 척도의 세 문항으로 구성된 정치관심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재선[23]의 연구에서 Cronbach α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3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며, 믿음과 실천의 다양성을 존

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시민의식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25]. 세계시민의식에는 여러 하위영역이 있는데 그 중 지식은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계, 사회정의, 정체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스킬은 비판적, 창의적사고, 공감, 자기인식과 반성, 의사소통, 협력과 갈등의 해결,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주지된 행동과 반성적 행동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25]. 다음 태도 영역은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 인권, 평등, 평화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실천의지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공동체에 참여하려는 실천의지를 의미한다[25]. 세계시민의식은 윤성혜[25]가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지식, 스킬, 태도, 실천의지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문항은 지식 7문항, 스킬 8문항, 태도 7문항, 실천의지 9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 α 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4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이면서, 능동적 시민으로의 핵심 역량이며[2] 정부와 정당, 사회적 단체 혹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와 관련된 모든 개인의 참여활동이다[3]. 본 연구에서는 남인용과 허일수[3]가 개발한 정치참여 의향 항목을 신재선[23]이 재구성한 도구를 대상자와 현재에 맞게 사용하였다. 정치참여는 소극적 정치참여와 적극적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하부영역을 가지고 있고 소극적 정치참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글을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는 경우, 인터넷 정치사회 문제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 정치 문제에 글을 쓴 행동을 포함한다[23]. 적극적 정치참여는 서명운동 참여, 정당정치참여,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모임 참여를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소극적 정치참여 4문항, 적극적 정치참여 3문항, 투표참여 3문항으로 전체 10문항이다. 이 중 투표참여의 문항은 21대 총선의 투표참여를 묻는 문항 2문항과, 다음 선거에서의 참여 의향을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투표참여의 문항은 신재선[23]의 연구와 동일하게 투표율을 확인하

는데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소극적 정치참여의 Cronbach α 값은 .82, 적극적 정치참여는 .6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정치참여는 .81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Kolmogorov-Smirnov test 상 정규분포를 확인함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의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내용을 학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언제든지 연구중단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에게 작성된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될 것이고 비밀보장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바로 폐기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8.1%, 여자가 81.9%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22.94세였다. 응답에 참여한 학생 중 3학년은 53.5%, 4학년은 46.5%로 3학년 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고등학교까지 거주했던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지역 거주학생이 14.2%였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중'이 83.9%로 가장 많았고, '하' 10.3%, '상' 5.8% 순이었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투표한 학생이 79.4%, 투표하지 않은 학생이 20.6%였다. 21대 총선 이전의 투표경험이 있는 학생은 58.1%, 없는 학생은 41.9%였다. 정치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이 42.6%로 가장 많았고 TV 23.9%, SNS 23.2% 순이었다.

Table 1.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SD	t or F	p
Gender	Male	28(18.1)	11.61±4.67	1.38	.169
	Female	127(81.9)	12.96±4.69		
Age	20-21	83(53.6)	22.94±5.58	0.23	.794
	22-23	47(30.3)			
	Older 24 years	25(16.1)			
Grade	3rd	83(53.5)	12.30±4.49	1.18	.240
	4th	72(46.5)	13.19±4.93		
Residential area (Until high school students)	Metropolitan area	22(14.2)	11.82±4.70	1.57	.185
	Gangwon	18(11.6)	11.33±4.56		
	Deajeon, Chungcheong	14(9.0)	13.71±5.46		
	Daegu, Kyung-sang-bukdo	87(56.2)	13.33±4.76		
Subjective economics status	High	9(5.8)	13.22±4.89	0.69	.933
	Middle	130(83.9)	12.66±4.65		
	Low	16(10.3)	12.88±5.28		
21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voted	Yes	123(79.4)	13.06±4.72	3.17	.077
	No	32(20.6)	11.41±4.49		
Past election vote	Yes	90(58.1)	12.58±4.94	0.19	.667
	No	65(41.9)	12.90±4.39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SNS	36(23.2)	12.56±4.53	1.63	.169
	Internet	66(42.6)	13.06±4.99		
	TV	37(23.9)	13.13±4.58		
	Youtube	10(6.5)	12.20±4.21		
	Others	6(3.8)	8.17±1.60		
Student union activity	Yes	26(16.8)	12.73±4.01	0.00	.986
	No	129(83.2)	12.71±4.85		
Circle activity	Yes	139(89.7)	12.74±4.73	0.04	.847
	No	16(10.3)	12.50±4.62		
Party affiliation	Yes	4(2.6)	16.50±5.20	2.69	.103
	No	151(97.4)	12.62±4.67		

학교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8%, 없는 학생은 83.2%였으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89.7%, 없는 학생은 10.3%였다.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 가입여부는 2.6%가 가입했고, 97.4%가 가입하지 않았다.

3.2 대상자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정치참여 수준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은 55점 만점에 평균 35.09±6.73점, 평균평점 3.19±0.61점이었으며 내재적 효능감은 22.94 ±4.35점, 평균평점 3.82±0.72점이었고, 외재적 효능감은 12.15±4.06점, 평균평점

2.43±0.81점으로 내재적 효능감 점수가 외재적 효능감 점수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정치관심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9.52±2.74점, 평균평점 3.17±0.91점이었다.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은 155점 만점에 평균은 121.78±13.63점, 평균평점 3.93±0.44점이었다.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지식은 35점 만점에 30.78±3.76점, 평균평점은 4.40±0.54점이었고, 스킬은 40점 만점에 27.81±4.93점, 평균평점은 3.97±0.7점이었다. 태도영역은 35점 만점에 30.17±4.06점, 평균평점은 4.31±0.58점이었으며, 실천의지는 45점 만점에 33.02±6.07점, 평균평점은 3.67±0.67점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 중 지식수준

Table 2.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Global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155)

Variable	M±SD	Min~Max	Mean point±SD*
Political efficacy	35.09±6.73	17~53	3.19±0.61
Internal efficacy	22.94±4.35	8~30	3.82±0.72
External efficacy	12.15±4.06	5~23	2.43±0.81
Political interest	9.52±2.74	3~15	3.17±0.91
Global citizenship	121.78±13.63	86~153	3.93±0.44
Knowledge	30.78±3.76	21~35	4.40±0.54
Skill	27.81±4.93	12~40	3.97±0.70
Attitude	30.17±4.06	17~35	4.31±0.58
Intent to act	33.02±6.07	48~45	3.67±0.67
Political participation	12.72±4.70	7~24	1.82±0.67
Passive participation	6.65±2.98	4~15	1.66±0.75
Active participation	6.07±2.42	3~15	2.02±0.81

*Mean point range 1~5

이 가장 높았고 태도, 스킬, 실천의지 순이었다. 정치참여도는 35점 만점에 평균 12.72±4.70점이었으며 평균평점 1.82±0.67점이었다. 정치참여 중 소극적 정치참여는 20점 만점에 6.65±2.98점이었고 평균평점은 1.66±0.75점이었으며, 적극적 정치참여는 15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6.07±2.42점, 평균평점 2.02±0.81점으로 적극적 정치참여가 소극적 정치참여 점수보다 높았다.

3.3 대상자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 관계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r=.27, p=.001)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보면 내재적 정치효능감(r=.22, p=.005), 외재적 정치효능감(r=.20, p=.013)으로 모두 정치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참여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r=.42, p<.001)를 나타내어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세계시민의식과 정치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r=-.02, p=.808), 하위영역인 태도와 정치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24, p=.003) 태도와 소극적 정치참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r=-.28, p<.001).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지식과 소극적 정치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19, p=.019), 실천의지와 적극적 정치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r=.22, p=.006).

3.4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인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를 독립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기본가정인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오차의 자기상관값(Durbin-Watson)값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0.90~0.97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3~1.11로 10 이하로 나타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Global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155)

Variables	Total Political Participation		Passive participation		Active participation	
	r	p	r	p	r	p
Political efficacy	.27**	.001	.24**	.002	.21**	.007
Internal efficacy	.22**	.005	.14	.073	.26**	.001
External efficacy	.20*	.013	.25**	.002	.08	.321
Political interest	.42**	<.001	.308**	<.001	.44**	<.001
Global citizenship	-.02	.808	-.08	.312	.06	.441
Knowledge	-.12	.123	-.19*	.019	-.01	.912
Skill	.08	.318	.12	.126	.01	.951
Attitude	-.24**	.003	-.28**	<.001	-.12	.150
Intent to act	.16	.121	.02	.810	.22**	.006

** p<.01, *p<.05

났으며 오차의 자기상관지수가 1.81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없이 독립적이었으므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 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18.775$, $p<.001$ 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였다. 대상자의 정치참여는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 정치효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회귀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25.7%였다. 따라서 정치관심도($\beta=.37$)와 정치효능감($\beta=.21$)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beta=-.27$)가 낮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n=155)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11.13	1.3		3.83	<.001	
Political interest	.63	.12	.37	5.06	<.001	1.08
Global citizenship_ Attitude	-.31	.08	-.27	-3.84	<.001	1.03
Political efficacy	.15	.05	.21	2.83	<.001	1.11

adj $R^2=.257$, $F(p)=18.775(<.001)$, Durbin-Watson=1.81, tolerance=0.90~0.97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수준을 파악하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시민자발성 모델의 심리적 요인인 정치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55점 만점에 평균 35.09±6.73점(평균평점 5점 만점에 3.19±0.61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간호사의 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한 Vandenhouten의 연구 [12]보다 높은 수준(평균평점 2.5점)이었고,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을 확인한 연구(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2점)[8],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5점 만점에 평균평점 3.07점)[17]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을 다루는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을 접한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

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효능감 중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효과성과 자신감을 말하는데[23] 본 연구에서의 내재적 효능감은 22.94±4.35점(5점 만점에 3.82±0.72점)이었고, 개인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뜻하는 외재적 효능감은[23] 본 연구에서 12.15 ±4.06점(5점 만점에 2.43±0.81점)으로 내재적 효능감 점수가 외재적 효능감 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외재적 효능감이 내재적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난 국내의 선행연구[8,10]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단체가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협회 및 간호단체들은 정책제안과 결정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단체들이 어떤 일을 위해 노력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외재적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정치관심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9.52 ±2.74점(5점 만점에 3.17±0.91점)이었다. 대구지역 대학생의 정치관심도가 5점 만점에 2.56점[23]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평균평점 2.92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시점이 다르고, 초. 중등교육에서부터 사회교과에서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관심도를 높인[16]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참정권을 가지면서 정치관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정보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8] 정치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간호사의 정치관심도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인 5점 만점에 3.70점으로 나타났는데[26], 이는 미국의 간호사는 간호협회에 등록되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면 대한간호협회에 등록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간호사가 되어서 정치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은 155점 만점에 평균은 121.78±13.63점(5점 만점에 3.93±0.44점)이었다.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지식은 35점 만점에 30.78±3.76점(5점 만점에 4.40±0.54점)이었고, 스킬은 40점 만점에 27.81±4.93점(5점 만점에 3.97±0.7점)이었다. 태도영역은 35점 만점에 30.17±4.06점(5점 만점에 4.31±0.58점)이었으며, 실천의지는 45점 만점에 33.02±6.07점(5점 만점에 3.67±0.67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27] 세계시민의식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96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다양성을 접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점점 국제화되면서, 세계시민은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더불어 타인을 존중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28], 세계시민의식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소양으로 여겨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세계시민의식의 지식과 태도의 수준은 높지만 그에 비해 실천의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간호학과 교양교육에서 사람을 대하는 민주적인 세계시민의식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식, 태도 뿐 아니라 실천의지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도는 35점 만점에 평균 12.72±4.70점(평균평점 1.82±0.6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정도를 확인한 연구(평균평점 2.34점)[17]와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조사한 연구(평균평점 2.14점)[8]보다 낮았다. 사회생활을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치참여를 시행한 연구와 [17] 비교했을 때 간호사가 학생보다는 정책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본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의 학생이었지만 선행연구[8]에서는 전북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광주와 정치참여도가 경상도를 대표하는 대구의 정치참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29]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지역별 정치참여 수준 차이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은 2020년 6월로 2020년 4월에 진행된 21대 총선이 지난 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5점 만점에 2.14점)[8]에 비해 본 연구의 정치참여도(5점 만점에 1.82±0.67점)가 낮았다. 정치효능감 중 외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은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23]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외재적 정치효능감이 선행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참여의 한 방법인 투표율을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21대 총선 투표율은 79.4%로 21대 총선 평균 투표율인 66.2%[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높으면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3] 지지하였고, 정치참여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투표

참여율은 높지만 다른 방법의 정치참여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정치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맞는 정치교육을 제안한다. 연구대상자들은 고등학교까지 세계사회에 대비한 기본적인 시민교육을 받았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그들에게 맞는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증서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80%가 간호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커리큘럼에 정치적 내용이 부족하고,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12], 대학생들이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에[4] 따라 대학생에게 맞는 정치교육이 필요함을 지지한다. 간호사로 성장한 후 정치참여를 위해서 학부 때부터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가치 등의 정치철학을 배우고, 정치참여의 방법에 대한 정치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 정치효능감 순으로 전체 정치참여를 25.7% 설명하였다. 이는 미국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 정치효능감이라고 한 결과[26]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 정치관심도로 나타난 선행연구의[8] 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Verba의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은 심리적 요인에 속하고, 심리적 요인이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1]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도 심리적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태도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태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낮아졌다($\beta = -.27, p < .001$).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는 사회와 세계화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평등을 인지하고 대하는 태도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지만(5점 만점에 4.31±0.58점), 정치참여와는 역상관계가 나타난 바,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정치참여가 중요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정치참여를 하지 않거나[7,31] 실천적 정치참여 활동을 준비하는 것에 소홀함에 따라 정치참여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32]으로 추측된다. 또한 최근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취업준비로 인하여 정치참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융합연구를 제안한다.

국내에서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요인을 밝히는 양적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 정치참여에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태도를 설명하는 다양성 존중이 원칙에 있으므로[33]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이전에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양성 존중 교육, 철학교육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참여의 방법을 제시하고, 정치신뢰도를 높이며, 정치참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정치교육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세계시민의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대상자는 경북 K 대학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155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게 나타났고,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태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beta=0.365$)였으며, 정치효능감,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가 포함되어 전체 정치참여를 25.7%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 중 태도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함으로써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융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간호학 학부과정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참여는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대상자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치참여방법,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정치참여 인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Verba & N. H. Nie.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S. R. Pak. (2017). The Meanings and Organization Plans of Social Studies Lessons on the Topic of Political Participation - With a focus on the theory of active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4), 113-136.
- [3] I. Y. Nam, & I. S. Huh. (2012).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4, 5-35. DOI : 10.35731/kpca.2012..24.001
- [4] S. J. Moon, & M. Kim.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Types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SSSS*, 48(0), 75-108. DOI : <http://dx.doi.org/10.18346/KSSSS.48.4>
- [5]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7). *Results of voter turnout analysis 19th presidential election*. [Online]. https://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FILE_00000000168480&fileSn=1&bbsId=B0000215.
- [6]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6). *Results of voter turnout analysis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line]. <https://m.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bfef41cc427f29747bbd51a63da7447bdb5f8d31f234935f6061aa67f12aa8d4&fileSn=2>.
- [7] B. Min, D. K. Kim, & S. H. Han. (2013). The Study of Political Ident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 in Daejeon A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24(1), 77-103. DOI : 10.16881/jss.2013.01.24.1.77
- [8] J. H. Kim. (2018).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ollege of Nursing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4), 37-45.
- [9] E. A. VandeWaa, D. L. Turnipseed, & S. Lawrence. (2019). A Leadership Opportunity: Nurses' Political Astuteness and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9(12), 628-630. DOI : 10.1097/NNA.0000000000000827
- [10] S. Y. Jun, I. S. Ko, & J. H. Lee. (2015).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38(1), 69-93.
- [11] M. J. Kim. (2018).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e on patient advocacy*. Master degree, Yonsei University, Seoul.
- [12] C. L. Vandenhouten, C. L. Malakar, S. Kubsch, D. E. Block, & S. Gallagher-Lepak. (2011).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gistered nurse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12(3), 159-167.

- DOI : <https://doi.org/10.1177/1527154411425189>
- [13] B. Woodward, D. Smart, & S. Benavides-Vaello. (2016). Modifiable factors that support political participation by nurs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2*(1), 54-61.
- [14] D. Benton, R. Al Maaitah, & M. Gharaibeh. (2017). An integrative review of pursuing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64*(1), 135-145. DOI : <https://doi.org/10.1111/inr.12275>
- [15] E. Y. Hong, & C. W. Choi. (2016). A Study on Ideal and Reality of German 'Politische Bildung'(Civic Education) as Cultural Praxis.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17*(17), 289-320.
- [16]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The practices and challeng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n schools*. Jincheon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7] S. Y. Jun, I. S. Ko, & K. R. Bae. (2014).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342-352.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3.342>
- [18] H. K. Yang. (2014). A Study on a Scheme To Construct Civil Education Model of Korea,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cas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2), 77-104.
- [19] M. J. Nam, & A. R. Jang. (2020). The Significance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The Politics of Education, 27*(1), 31-60.
- [20] K. Kang, & J. H. Oh. (2015). Outcom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Korean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1), 1-32.
- [21] C. Lee, & Y. Lee.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NS Activities and Political Education Experience in School on Civ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of Election, 1*(12), 53-75.
- [22] M. J. Kim. (2017). The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on Citizenship of Students :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OUGHTOPIA, 32*(1), 101-123. DOI : 10.32355/OUGHTOPIA.2017.05.32.1.101
- [23] J. S. Shin.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Master Degr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4] D. W. Shin, & H. S. Yang.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2), 137-159.
- [25] S. Yoon. (2017).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Indicator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6] M. E. Cramer. (2002). Factors influencing organ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3*(2), 97-107.
- [27] Y. S. Kim, & M. Han. (2018).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47-357. DOI : 10.14400/JDC.2018.16.9.347
- [28] D. S. Lee, & H. S. Sohn. (2008). Global Civil Society and Global Ethic. *Journal of Korean Politics, 17*(1), 271-287.
- [29] T. G. Yoo, & J. K. Cha. (2020). A Comparative Study on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ts Differences between Social Groups in Six Metropolitan Cities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 Daejeon). *Journal of Social Science, 31*(3), 237-263. DOI : 10.16881/jss.2020.07.31.3.237
- [30]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20). *Analysis 21th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men voting turn out*. [Online].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 [31] M. K. Ahn, & J. H. Ryu. (2007). A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Factor.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23), 113-148.
- [32] H. Choi, T. S. Lee, Y. Hong, & H. Y. Kim. (2015). What would explain social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7*, 185-211.
- [33] D. C. Shin. (2014). Debate on Politic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24*(4), 33-50. DOI : 10.19032/zkdgs.2014.09.24.4.33

이 정 임(Jeongim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2017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분만취약지

· E-Mail : jjungim4u@naver.com